

## JENESYS 2018

### 평생스포츠로 지역을 활기치게! 지역 활성화 매력 발신 사업 (공익재단법인 일한문화교류기금 공모사업)



올해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홋카이도와 (공사)홋카이도 국제교류 협력종합센터에서 외무성의 JENESYS(제네시스)사업을 활용해 홋카이도 청년을 한국 우호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JENESYS는 일본 외무성의 대일이해교류촉진 사업으로 홋카이도에 있는 호쿠쇼대학의 한국어와 미니배구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 등 22명이 홋카이도와 우호교류를 맺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를 방문해 홋카이도 발상 평생스포츠인 미니배구 교류와 한국 문화 체험 등 10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 10일간의 알찬 활동을 소개합니다.

### 21일(수)

출발하기 전 홋카이도와 (공사)홋카이도 국제교류 협력종합센터, 주삿포로대한민국총영사관을 예방해 인사를 나누고 한국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방문**  
홋카이도와 서울특별시는 2010년 우호교류협정에  
조인하고 다양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 22일(목)

오전에는 서울특별시청을 방문해 서울시의 국제교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후에 서울시립대학을 방문해 홋카이도의 매력과 미니배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서울시립대학 학생 20명과 그룹을 나누어 자기소개 등을 하며 교류했습니다. 그 후에는 체육관으로 이동해 팀별로 미니배구를 체험했습니다.



서울시립대학 국제교육원과 호쿠쇼대학 교수는 각 학교의 국제 교류 현황과 앞으로의 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

### 23일(금)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서 한국 역사, 전통 의상을 체험하고 북촌 한옥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24일(토)~25일(일)은 홈스테이로 한국의 가정에서 한국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상남도 방문  
홋카이도와 경상남도는 2006년 교류의향서에 조인하고 다양한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26일(월)

경상남도청을 방문해 경상남도의 소개 영상을 보았습니다.



27일(화)

창동예술촌 상상길과 MBC경남 라디오 스튜디오 등을 견학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올해 홋카이도에서 공연을 했던 경남국악관현악단을 찾아 대금, 아쟁, 가야금, 거문고 등 한국 전통 악기를 들어보고 체험했습니다.

오후에 경남대학을 방문해 경남대학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홋카이도의 매력과 미니배구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경남대학 학생 20명과 그룹을 나눠 자기소개 등을 하며 교류하고 체육관으로 이동해 팀별로 미니배구를 체험했습니다.

경남대학교 일어교육과, 대외교류처와 호쿠쇼 대학 교수는 각 학교의 국제 교류 현황과 앞으로의 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28일(수)

빙그레 김해공장을 방문해 생산라인을 보고 시음을 하는 등 한국 기업을 견학했습니다.



29일(목)

한국에서 보고 느낀 점과 그 경험을 이후 어떻게 살릴지 성과보고회에서 발표했습니다.



12/21일(금)

삿포로로 돌아와서 제네시스 사업을 돌아보며 학교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제네시스를 통해서...

- 이번 경험을 통해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문화를 받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이문화를 받아 들이고 자국 문화를 발신할 수 있는 어린이를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 스포츠는 국경을 넘어 교류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 말이 통하지 않아도 한국 학생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한국 친구와는 함께 차세대의 미래를 짊어질 친구로서 앞으로도 우정을 쌓아나가고 싶다.
- 일본과 한국의 다음 세대를 짊어질 우리 세대들이 서로 많은 교류를 함으로써 일본과 한국이 더욱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홈스테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말은 잘 안통했지만 윗놀이 등을 하며 교류할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어를 더 공부해 한국인과 한국어로 대화하고 싶다. 국제교류의 즐거움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 제주특별자치도 대표단 방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김남진 문화정책과장을 비롯한 제주도 방문단이 11월 13일~16일 홋카이도를 방문했습니다.

또한 제주를 대표하는 밴드인 '사우스카니발'과 '디오디오'도 제주도의 특색 있는 공연을 통해 홋카이도와 교류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11월 14일에는 홋카이도에 있는 각국 총영사관 등이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인터내셔널워크에서 한국을 대표해 사우스 카니발이 공연을 펼치고 오후에 홋카이도청 국제과를 찾아 국제국장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다음날인 15일에는 인터내셔널워크에서 디오디오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15일 저녁에는 주삿포로총영사관이 주최하는 '코리아 사운드 브릿지'에서 두 팀이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 전에 제주관광공사에서 제주도에 대한 소개를 하고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도민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에게 익숙한 일본곡을 포함해 제주도 방언을 살린 특색있는 노래까지 열기는 뜨겁게 돌아올랐습니다.



### 제주국제청소년포럼 2018

홋카이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 우호 협정을 체결하고 다방면의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제주국제청소년포럼은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주최하는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포럼으로 홋카이도 청소년도 초대받아 4명의 홋카이도 고등학생이 참가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우리가 원하는 평화와 번영 : 세계 청소년 시민의 실천'을 주제로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어 11개국 29개 도시에서 모인 청소년들이 영어로 토론하고 제주 문화를 체험하고 자국 문화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 ~참가자들의 경험담~

**안치루** - 한국 친구들이 곤니치와라고 일본어로 인사를 해줘서 덕분에 긴장하지 않고 말할 수 있었다. 각국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어서 좋았고 좀 더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제주도에서는 자연환경을 시찰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시내도 둘러보고 싶다.

**쿠리코** - 처음에는 룸메이트인 다른 나라 학생들과 약간 서먹하기도 했는데 같이 지내다 보니 홋카이도에 흥미가 있는 친구도 있었고 일본의 드라마나 음악 등을 통해 일본에 대해 잘 아는 친구들도 많았다. 각 나라 친구들과 교류하며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을 앞으로도 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유마** - 제주도의 학생들을 만났는데 일본어도 잘해서 한국어를 가르쳐줬다. 다른 나라 친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다른 나라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음식은 불고기가 기억에 남는다. 상추가 나왔는데 쌈싸먹는 법을 알려줘서 맛있게 먹었다.

**리사** - 여러나라 사람을 만나서 즐거웠고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경험이 되었다. 이렇게 청소년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포럼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제주도는 음식이 맛있고 경치가 예뻐다. 천지연 폭포가 기억에 남는다.



※ 아카렌가 통신 과월호는 홋카이도청 국제과 한국어 홈페이지 <http://www.pref.hokkaido.lg.jp/foreign/korean.ht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홋카이도 관광 정보는 홋카이도 관광진흥기구 홈페이지 <http://hokkaido.japanpr.com>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발행: 홋카이도 종합정책부 국제국 국제과 (北海道札幌市中央区北3条西6丁目 TEL: +81-11-204-5114 FAX: +81-11-232-4303)